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김 순 례* · 이 종 은**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들에게 임상실습은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을 간호현장에서 실제 대상자에게 적용하여 간호를 제공해봄으로써 학생들의 지식, 태도, 기술에 대한 잠재력을 개발시키고 창의력과 응용력을 길러주는 학습과정이다(전화연, 1984).

학생들이 능숙한 임상전문가로서 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호학 이론은 물론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겸비하기 위하여 임상실습교육이 필수적이다(김문실, 1995). 이와 같이 임상실습 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간호교육은 이론에 치중하고, 현장교육의 방법에 관한 연구 개발에 집중하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또한, 간호현장에서는 숙달된 학생을 요구하고 있어 실습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까지는 거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경희, 1998).

따라서 학생들은 임상실습에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부정적 경험을 하며(최현영, 1991; 김정은 등, 1998; 문미숙, 1998; 안희남, 2004),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실습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신체적 건강문제와 불안, 실패감, 긴장, 좌절, 우울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하나선, 한금선, 최

정, 1998).

인간이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되면, 환경적 요구와 개인 내적 요구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개인의 대응능력을 초과하게 될 때 이를 해결하거나 관리함으로써 평형상태를 유지하려는 대처방식을 사용하게 된다(Lazarus & Folkman, 1984). 대처란 내적, 외적 요구와 갈등을 감소시키고, 참아내고 억누르기 위해 만들어진 의지적 행동 노력이다(정순영, 양진향, 1993). 간호학생들이 임상실습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과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것은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적응력을 높이는 학습 환경의 조성과 효율적 임상실습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오미정, 2000).

박현숙 등(2002)은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지각과 자아존중감이 관련 있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으로서(Rosenberg, 1979), 전문직 간호사가 되기 위해 개인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의 하나이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정확한 현실적 세계관에 대한 통찰력을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있으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교신저자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연구조교

다. 이에 연구자는 미래 전문 보건의료직에 종사하게 될 간호대학생들이 실습 중 경험하는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자아존중감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실습 스트레스를 줄이고 효율적 임상실습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실습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 시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을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정도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 시내 5개 4년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04년 6월부터 7월까지, 총 200부를 배부하여 회수한 17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임상실습 스트레스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이숙자(1989), 최현영(1991), Beck과 Sriavastava(1991) 등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실습

교육환경,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 실습업무부담, 대인 관계 갈등, 환자와의 갈등 5개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5점 척도,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내적 일관성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2) 대처방식

Lazarus와 Folkman(1984)이 개발한 도구를 김정희(1987)가 번안한 것으로써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 2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 는 .93이었다.

3) 자아존중감

Rosenberg(1979)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박미영(1999)이 수정·보완한 도구로써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척도,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 는 .89이었다.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은 t-test, ANOVA를 사용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하였다.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 사이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적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20~23세가 85.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성별은 남자가 0.6%, 여자가 99.4%이었다. 편입경험이 있는 학생이 26.0%, 학년은 3학년이 18.4%, 4학년이 81.6%, 종교를 가진 학생은 66.5%이었다. 간호학과 지원 동기는 고교 성적을 고려해서가 30.5%로 가장 높았다.

간호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63.7%, 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39.7%, 신체적 건강상태는 '건강함'이 54.7%로 가장 높았다.

실습 운영체계는 '3일 실습과 3일 강의'가 32.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8주 실습과 8주 강의'가 29.9%, '3주 실습과 3주 강의'가 26.4%, '2일 실습과 3일 강의'가 11.5% 순이었다. 실습 지도자는 교수가 44.1%, 조교 72.1%, 수간호사 25.1%, 임상 간호사 48.6%, 기타 3.9%이었다. 미래 희망하는 간호직은 임상간호사가 6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79)

특성	구분	N(%)
연령	20~23세	153(85.5)
	24~29세	26(14.5)
성별	남	1(0.6)
	여	178(99.4)
편입경험	유	46(26.0)
	무	131(74.0)
학년	3	33(18.4)
	4	146(81.6)
종교	유	119(66.5)
	무	60(33.5)
간호학과 지원동기	고교 성적을 고려해서	54(30.2)
	부모님의 권유로	12(6.7)
	취업률이 높아서	45(25.1)
	간호에 대한 신념이 있어서	53(29.6)
	기타	15(8.4)
간호학과 만족도	만족	114(63.7)
	보통	48(26.8)
	불만족	17(9.5)
실습 만족도	만족	70(39.1)
	보통	71(39.7)
	불만족	38(21.2)
신체적 건강상태	건강함	98(54.7)
	보통	61(34.1)
	나쁨	20(11.2)
실습 운영체계	8주 실습 + 8주 강의	52(29.9)
	3주 실습 + 3주 강의	46(26.4)
	3일 실습 + 3일 강의	56(32.2)
	2일 실습 + 3일 강의	20(11.5)
실습 지도자 (복수응답)	교수	79(44.1)
	조교	129(72.1)
	수간호사	45(25.1)
	임상 간호사	87(48.6)
	기타	7(3.9)
희망 간호직	임상간호사	115(66.5)
	보건간호사	6(3.5)
	보건교사	20(11.5)
	교수	15(8.7)
	고급 공무원	10(5.8)
	기타	7(4.0)

무응답 제외

보건교사 11.5%, 교수 8.7%, 고급 공무원 5.8%, 기타 4.0%, 보건 간호사 3.5% 순이었다<표 1>.

2. 임상실습 스트레스

조사 대상자의 임상실습의 스트레스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3점으로 최소값 2.1점에서 최대값 4.5점까지의 범위로 나타났다. 영역별 스트레스 정도는 5개 하위 영역 중 '실습업무 부담'이 3.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실습교육 환경' 3.7점,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 3.4점, '환자와의 갈등' 3.1점, '대인관계 갈등' 2.7점 순이었다<표 2>.

<표 2> 임상실습 스트레스 영역별 점수 (N=179)

영역	Mean±SD	Range
실습교육환경	3.67±0.63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 모델	3.41±0.75	
실습업무 부담	3.70±0.54	
대인관계 갈등	2.75±0.76	
환자와의 갈등	3.08±0.65	
전체 평균	3.33±0.48	2.12~4.51

스트레스 정도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실습교육 환경 영역에서는 '실습장에서 학생의 역할이나 업무가 분명치 않을 경우'가 4.3점으로 가장 높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 영역에서는 '간호사가 간호학생을 경계하거나 싫어하고 무관심한 경우'가 3.6점으로 가장 높았다. 실습업무 부담 영역에서는 '과제물이 지나치게 많이 부과될 때'가 4.3점으로 가장 높았다. 대인관계 갈등 영역에서는 '간호사나 기타 의료요원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된 일이 많다'가 3.4점이었고, 환자와의 갈등 영역에서는 '환자가 학생 간호사의 간호수행을 불신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3.6점으로 가장 높았다 <표 3>.

3. 대처방식

스트레스 대처방식 점수는 평균 3.2점으로 나타났으며, 문항별로 살펴보면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나 지지자와 대화한다'가 3.9점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노력한다' 3.8점, '일이 잘되어 나갈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변화시킨다' 3.6점, '그 일에서 무엇인가 바람직한 것을 얻어내려 협상하거나 타협한다' 3.6점, '내 스스로 문제를 일으켰음을 깨닫는다' 3.6점 순으로 많이 사용

<표 3> 임상실습 스트레스 문항별 점수

(N=179)

영역	문항내용	Mean±SD
실습교육환경	1. 실습 목적이 분명히 파악되지 않을 경우가 있다.	3.24±0.99
	2. 실습장에서의 학생의 역할이나 업무가 분명치 않을 경우 스트레스를 받는다.	4.24±0.75
	3. 임상 실습을 위한 공간과 시설이 부족하다.	3.55±1.07
	4. 학교에서의 교육내용과 임상 실무와의 연결이 힘들 경우 스트레스를 받는다.	3.72±0.83
	5. 학교 교육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인력으로 충당된다고 느낄 때가 많다.	3.58±1.21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	6. 간호사가 간호학생을 경계하거나 싫어하고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3.65±1.00
	7. 간호사가 계속적으로 공부하지 않아 지식이 부족한 경우를 보았다.	3.53±0.92
	8. 간호사가 자신이 하기 싫은 일상 업무를 전가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3.34±1.27
	9. 간호사가 학생이라고 무시하며 반말하는 경우가 있다.	3.10±1.27
	10. 간호사가 독자성이 부족하고 의사의 보조역할만을 하는 것을 보았다.	3.42±0.95
실습업무 부담	11. 간호사가 간호수행시 원칙에 벗어난 행동을 보일 때가 있다.	3.42±0.95
	12. 실습 중 지나치게 많은 업무가 부과될 경우가 있다.	3.51±1.03
	13.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하지 않아도 될 비교육적인 업무가 부과될 경우가 있다.	3.44±0.99
	14. 실습 과제물이 지나치게 많이 부과될 때가 있다.	4.26±0.74
	15. 실습하면서 항상 잠재되어있는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느낀다.	3.57±0.86
대인관계 갈등	16. 간호사나 기타 의료요원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것을 본적이 많다.	3.42±0.94
	17. 임상 지도교수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가 많다.	2.16±0.95
	18. 같은 실습조 친구와의 갈등 및 의견 충돌이 많다.	2.62±1.13
	19. 같은 실습조 친구의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2.81±1.14
환자와의 갈등	20. 환자와의 관계형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3.33±1.03
	21. 환자로부터 신체적 손상의 위험이 있을 경우가 있다.	2.42±1.06
	22. 적의에 찬 환자가 있는 상황에서 실습할 때가 있다.	2.92±1.15
	23. 환자가 학생 간호사의 간호수행을 불신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3.60±0.90
	24. 환자가 치료상 들어 줄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가 있다.	3.15±0.96

<표 4> 대처방식 문항별 점수

(N=179)

항목	Mean±SD
1. 그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그것을 자세히 분석한다.	3.36±0.72
2. 그 일에서 무엇인가 바람직한 것을 얻어내려고 협상하거나 타협한다.	3.57±0.74
3.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나 지지자와 대화한다.	3.98±0.73
4. 내 스스로 문제를 일으켰음을 깨닫는다.	3.56±0.84
5. 일이 잘되어 나갈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변화시킨다.	3.63±0.71
6. 과거의 경험에 의존한다.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3.44±0.79
7.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노력한다.	3.84±0.76
8.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기다리는 것뿐이다.	2.87±1.09
9. 운으로 돌린다.	2.94±1.07
10.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군다.	2.66±1.04
11. 그 일이나 상황의 밝은 쪽만을 보려고 한다.	3.40±0.99
12. 보통 때 보다 더 오래 잔다.	3.48±1.20
13.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나 물건에 대하여 화를 낸다.	2.88±1.12
14. 무엇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셔 기분을 전환한다.	2.82±1.43
15. 대체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피하고, 혼자 있으려고 한다.	2.60±1.20
16.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를 한다.	2.80±1.20
17. 그 일을 무시해 버린다.	2.79±1.05
18. 어쩔 수 없었으므로 체념하고, 그 일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3.10±0.99
19. 내 감정 때문에 다른 일들이 너무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3.46±0.84
20. 그 일이 잘되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한다.	3.26±1.24
21. 조깅이나 다른 운동을 한다.	2.63±1.14
전체 평균	3.19±0.34

하고 있는 대처방식들로 나타났다 <표 4>.

4. 자아존중감

<표 5> 자아존중감 문항별 점수

(N=179)

항목	Mean±SD
1.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5.79±1.19
2. 나는 나에게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5.56±1.16
3. 전반적으로 볼 때, 나는 내가 실패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5.49±1.48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5.58±1.21
5. 나에게는 자랑할만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4.99±1.55
6.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5.44±1.34
7. 전반적으로 볼 때, 나는 나 자신이 만족스럽다.	5.03±1.47
8. 나는 나 자신을 보다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생각한다.	4.53±1.76
9. '나는 틀림없이 쓸모없는 사람이야'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5.48±1.62
10. 이따금 나는 내가 아주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5.16±1.69
전체 평균	5.31±1.08

자아존중감의 평균 점수는 5.3점으로 이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가 5.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나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5.6점, '나는 나에게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5.6점 순으로 나타났다<표 5>.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24~29세군이 20~23세군보다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3), 4학년이 3학년보다 스트레스 정도가 높았다(p=<.0001). 간호학과에 대한 만족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

(N=179)

특성	구분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		
		Mean± SD	t, F	p	Mean± SD	t, F	p	Mean± SD	t, F	p
연령	20~23세	3.30±0.47	-2.61	0.03*	3.18±0.35	-1.09	0.27	5.39±1.02	2.36	0.02*
	24~29세	3.52±0.50			3.26±0.26			4.86±1.31		
편입경험	유	3.36±0.57	0.38	0.71	3.22±0.27	0.61	0.54	5.07±1.16	-1.68	0.09
	무	3.32±0.45			3.19±0.36			5.38±1.04		
학년	3학년	2.79±0.37	-8.09	<.0001***	3.06±0.34	-2.44	0.02*	5.49±0.93	1.04	0.30
	4학년	3.45±0.41			3.22±0.33			5.27±1.10		
종교	유	3.30±0.50	-1.48	0.14	3.20±0.36	0.55	0.58	5.34±1.12	0.52	0.60
	무	3.41±0.48			3.17±0.30			5.25±0.98		
간호학과 지원동기	고교 성적을 고려해서	3.44±0.43	0.81	0.52	3.15±0.34	1.20	0.31	5.25±1.11	0.26	0.90
	부모님의 권유로	3.65±0.40			3.38±0.27			5.38±1.20		
	취업률이 높아서	3.48±0.48			3.19±0.30			5.35±1.09		
	간호에 대한 신념이 있어서	3.36±0.61			3.17±0.37			5.25±1.03		
기타	3.37±0.45	3.27±0.39	5.53±1.11							
간호학과 만족도	만족	3.25±0.48a	9.25	0.00**	3.18±0.36	0.33	0.72	5.43±0.99a	7.47	0.00**
	보통	3.37±0.38a			3.22±0.31			5.35±0.93a		
	불만족	3.76±0.52a			3.22±0.31			4.39±1.58a		
실습 만족도	만족	3.19±0.49a	10.90	<.0001***	3.22±0.38	2.00	0.14	5.63±0.91a	8.57	0.00**
	보통	3.32±0.41a			3.13±0.29			5.29±0.86a		
	불만족	3.62±0.48a			3.26±0.34			4.77±1.46a		
신체적 건강상태	건강함	3.13±0.49	0.57	0.56	3.19±0.30	0.17	0.85	5.54±1.01a	5.00	0.01*
	보통	3.33±0.42			3.19±0.38			5.04±1.12a		
	나쁨	3.44±0.62			3.23±0.39			5.01±1.01		
실습 운영체제	8주 실습 + 8주 강의	3.26±0.44a	11.99	<.0001***	3.18±0.37	2.81	0.05	5.37±1.05	0.20	0.89
	3일 실습 + 3일 강의	3.44±0.45b			3.23±0.35			5.26±0.84		
	2일 실습 + 3일 강의	2.85±0.53ab			3.00±0.34			5.36±1.01		
	3주 실습 + 3주 강의	3.51±0.40a			3.25±0.27			5.22±1.38		

*p<0.05, **p<0.01, ***p<0.001

a, b : schéffe test(means with the same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도는 '만족한다', '보통이다'군에 비해 '불만족'군에서 스트레스가 높았고($p=0.00$), 실습만족도 역시 '만족'군, '보통'군에 비해 '불만족'군에서 스트레스가 높았다($p<.0001$). 실습 운영체계는 '3주 실습과 3주 강의'군이 '8주 실습과 8주 강의', '2일 실습과 3일 강의'를 하는 군보다 스트레스가 높았다($p<.000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4학년이 3학년보다 대처방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20~23세군이 24~29세군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고($p=0.02$), 간호학과 만족도와 실습만족도는 '보통'군, '불만족'군보다 '만족'군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 신체적 건강상태는 '건강한'군이 '보통'군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다($p=0.01$)<표 6>.

6.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 사이의 관계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 사이의 상관관계는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대처방식과 정 상관관계($r=0.24$, $p<.001$), 자아존중감과는 역 상관관계($r=-0.27$, $p<.001$)를 나타냈으며, 자아존중감과 대처방식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표 7>.

<표 7> 임상실습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1.00	0.24**	-0.27**
대처방식	0.24**	1.00	0.00
자아존중감	-0.27**	0.00	1.00

* $p<0.05$, ** $p<0.01$, *** $p<0.001$

IV. 논 의

본 연구의 결과에서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 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3.3점으로 양선희(1988)의 3.1점 보다는 다소 높았고, 최현영(1991)의 3.9점, 이진희(1993)의 3.6점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스트레스 정도는 본 연구에서 5개 하위 영역 중 '실습업무에 대한 부담'이 평균 3.7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실습교육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3.7점,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 3.4점, '환자와의 갈등' 3.1

점, '대인관계 갈등' 2.7점 순이었다. 김혜순(1983)의 연구에서는 역할요인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환경, 간호행위, 대인관계, 신체적 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요인 중에는 '간호사나 수간호사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남옥(1998)의 연구에서는 실습지도 및 평가 영역에서 스트레스가 높았고, 그 다음으로 간호사 영역, 인간관계 영역 순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박인순과 박영주(1993)의 연구에서는 역할, 환경 및 대인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순이었으며 특히, 본 연구에서 '실습업무 부담' 영역에 속하는 '실습 과제가 지나치게 많이 부과' 것에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은 최현영(1991)의 연구에서 과제와 관련된 요인에서 스트레스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점과 일치하였다. 본 연구결과 학생들이 실습조원이나 임상간호사, 임상 지도교수 등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하고 있었으나, 과도한 과제물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 학생들이 새로운 임상현장에 적응하고, 흥미롭게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대처방식은 평균 3.2점으로 주로 사용하는 대처방식은 '도움이 될만한 사람이나 지지자와 대화 한다'가 가장 많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생각해 보려 노력 한다', '일이 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변화 시킨다', '그 일에서 무엇인가 바람직한 것을 얻어내려 협상하거나 타협 한다', '내 스스로 문제를 일으켰음을 깨닫는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제를 회피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부정적인 대처방식이 아니라 문제를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문제해결중심의 발전적인 대처 경향을 엿볼 수 있어 긍정적인 현상으로 해석된다. 실습지도자들은 학생들과 개방적인 토론을 유도하고 적절한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평균 5.3점으로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나는 나에게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스트레스의 경우

24~29세군이 20~23세군 보다 스트레스가 높았고, 4학년이 3학년 보다 스트레스가 높았다. 이는 4학년의 경우 졸업을 앞두고 진로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해석된다. 또한 대처방식 정도도 4학년이 3학년보다 높았는데, 이는 4학년이 3학년에 비해 더 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 나름대로 스트레스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터득해 가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은 5개 대학의 3, 4학년 학생을 임의표출 하였으므로 대학특성, 부속병원의 유무 등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간호학과에 대한 만족도와 실습의 만족도는 '불만족'군에서 스트레스가 높은 반면, '만족'군에서의 자아존중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신체적으로 '건강한'군이 '보통'군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자신의 생활을 가치 있고 보람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 있게 행동하기 때문에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아울러 진취적이고 활력 있는 삶을 전개한다는 Rosenberg(1979)의 견해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보여 진다.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는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대처방식 간에는 정 상관관계를,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사이에는 역 상관관계를 보여 간호학생들이 임상실습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자아존중감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반응양상이 낮아졌다는 장은영(200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고, 박현숙 등(2002)의 자아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이 높은 군이 낮은 군에 비해서 학업, 취업 스트레스가 낮고, 문제 중심적 대응을 많이 한다는 보고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였고, 자아존중감은 낮은 현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문제해결 중심의 긍정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하도록 돕고,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려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자아존중감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실습 스트레스를 줄이고 효율적 임상

실습 교육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서울 시내 5개 4년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4년 6월부터 7월까지 총 200부를 배부하여 회수한 17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평균 3.3점이었고, 스트레스 영역별로는 '실습업무 부담'에 대한 스트레스와 '실습교육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가 3.7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 3.4점, '환자와의 갈등' 3.1점, '대인관계 갈등' 2.7점 순이었다. 대처방식의 평균 점수는 3.2점이었고, 자아존중감은 5.3점이었다.
2.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24~29세군이 20~23세군 보다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4학년이 3학년 보다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다. 간호학과에 대한 만족도와 실습 만족도는 '만족'군과 '보통'군에 비해 '불만족'군에서 스트레스가 높았고, 실습 운영체제는 '3주 실습과 3주 강의'군이 '8주 실습과 8주 강의', '2일 실습과 3일 강의'군 보다 스트레스가 높았다.
3. 대처방식은 4학년이 3학년 보다 점수가 높았다.
4. 자아존중감은 20~23세군이 24~29세군 보다 높았고, 간호학과 만족도와 실습 만족도는 '보통'군, '불만족'군 보다 '만족'군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건강상태는 '건강한'군이 '보통'군 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5.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 사이의 상관관계는 실습스트레스는 대처방식과는 정 상관관계를, 자아존중감과는 역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였고, 자아존중감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임상실습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생으로 하여금 문제해결 중심의 긍정적 대처방식을 사용하도록 돕고,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김문실 (1996). 산학 협동을 위한 간호교육. 한국교육학회 학술 심포지움.

김정은, 노상옥, 이정선, 이주미, 이주연, 정경이 (1998). 간호학생의 실습과 관련된 스트레스 실태 조사. *연세간호*, 12, 42-76.

김정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관한 작용-대학 신입생의 스트레스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순 (1983). 일부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장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기초조사 연구. *경기간호전문대학 논문집*, 14, 105-124.

문미숙 (1998). 간호학생의 첫 임상실습 경험. *한국간호교육학회지*, 4(1), 15-27.

박미영 (1999). *자기존중감을 구성하는 요인 : 영역별 우울 및 자기수용과 전반적인 자기존중감간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인순, 박영주 (1993). 임상실습시 간호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조선대병설간호전문대학 논문집*, 12, 113-117.

박현숙, 배영주, 정선영 (2002) 간호대학생들의 자아 존중감, 자기 효능감, 대응방법 및 학업·취업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1(4), 621-631.

안희남 (2004). *간호학생이 정신간호학 실습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선희 (1988).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시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분석적 연구. *최신 의학*, 31(3), 47-51.

오미정 (2000).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대처 방식에 대한 인식유형. *대한아동간호학회지*, 6(3), 423-436.

이경희 (1998).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현장체험. *제주한라대학논문집*, 22, 245-254.

이숙자 (1989). 임상실습시 간호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통제 위성격과의 관계연구. *인천간호보건전문대학논문집*, 7, 89.

이진희 (1993). 임상실습시 간호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유형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58, 445-463.

장은영 (2001). *간호대학생들의 스트레스반응 양상과 자아 존중감과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화연 (1984). *임상실습시 간호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분석적 연구*. 전문대학생을 중심

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순영, 양진향 (1993). Q연구 방법론에 의한 간호사의 스트레스 경험 유형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23(2), 269-283.

조남옥 (1998). 간호학생들의 자기표현 수준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관계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4(2), 317-330.

최현영 (1991). *간호학생의 임상수행 능력과 스트레스 요인과의 관계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나선, 한금선, 최 정 (1998). 간호학생의 스트레스 지각, 대처유형, 스트레스 반응간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28(2), 358-368.

Beck, D. L., & Srivastava, R. (1991). Perceived level and Sources of Stres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0(3), 127-133.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 Basic Books. ..

- Abstract -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Kim, Soon-Lae* · Lee, Jong Eun**

The study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mong stress associated with clinical experience,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an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which is useful for nursing students' learning experience in clinical setting were surveyed using self-reported questionnaires.

The findings were summarized :

* Collage of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 Collage of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1. Senior students showed a higher level of stress than junior students. A higher stress level was observed in the unsatisfied group, compared with the neutral group. By class and clinical schedule, students who followed the 3-week class and 3-week clinical schedule showed a higher level of stress than those who followed the 8-week class and 8-week clinical schedule.
2. Senior students had a higher mean coping strategy score than junior students. And the satisfied group showed higher self-esteem, compared with the neutral and unsatisfied group.
3.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tress associated with clinical learning experience and coping strategies. But a negative correlation was seen between stres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4. Nursing students used more coping mechanisms as their stress levels increased but showed low self-esteem. The results suggest the need for developing more effective teaching methods and strategies that could improve students' ability to solve problems and sustain their self-esteem even under a stressful circumstance.

Key words : Stress, Coping skills,
Self-esteem